

개국 1주년을 맞이하는 MOCA

제1회 2018 MOCA AWARDS 처음으로 열려



▶모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종서 교수

MOCA가 개국된 지 1년을 맞이 해간다. MOCA는 동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내 현장실습공간인 미디어 아웃렛에서 기획하고 제작되는 모든 프리미엄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무료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익적 목적의 OTT(Over-the-top) 기반 서비스다. MOCA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열린 콘텐츠의 공간이자, 혼탁해진 미디어 환경의 정화를 지향한다. 여기서 미디어 아웃렛은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기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창의적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CA 방송국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들이 제작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든 연도별 학생 작품이 MOCA를 통해 방송되고 있고 실시간 편성이 되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자동번역 기능도 갖추었다. 세계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MOCA에 있는 프로

그램의 내용이 2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동시에 된다. 콘텐츠들은 단순히 제작을 하고 모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의 중심이 된다. 수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모카에 방송을 해야만 한다. 모카에 방송된 콘텐츠를 통해 교수의 시청의 반응을 평가에 활용하기도 한다. 과거에도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 그러나 그때는 철저하게 교수의 관점에서 평가가 진행됐다면, 모카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관점이 넓어지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대중이 바라보는 평가를 통해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됐다.

카테고리는 ▲인 미디어 ▲CM 광고 ▲공모전 ▲다큐멘터리 ▲대학 방송 ▲드라마 ▲생활정보 ▲예능 오락 ▲지역 뉴스 ▲지역 콘텐츠 ▲클린 아카이브 ▲홍보영상 이 있다. 또한 MOCA 제작 윤리 규정이 적혀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제1회 2018 MOCA AWARDS가 열렸다. 순서는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는 모카 어워즈 시상식 및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제2부는 수상자 및 졸업생 축하파티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동서대학교 뉴 밀레니엄 소향아트홀 및 미디어 아웃렛에서 개최됐다. 또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 아웃렛 사업단이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 및 학부교수들 그리고 학교 재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개그맨 김영민, 김아진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제1회 MOCA AWARDS는 식순이 종이 아닌 QR코드가 특징이었다.

시상하는 부문은 ▲다큐멘터리 부문 ▲비 다큐멘터리부문 ▲지역 콘텐츠 부문 ▲커뮤니케이션기획 부문 ▲크리에이트 부문 ▲특별상부문 으로 나뉘었다. 시상상은 JTBC 콘텐츠 사업단 박영준 디렉터, 부산 MBC 콘텐츠 팀장 채충현 차장, 주재철 총국장 강수복 본부장, 안병진 교수, 김 현 교수가 맡았다.

개회기도 후 조종성 제1부총장이 축사를 했다. "시작은 미미하나 앞으로는 더 참대하게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깊어가는 가을 이렇게 뜻 깊은 제1회 모카 어워즈가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의 방송국 모카가 12월 5일에 개국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크게 성장하여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니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학부 교수를 비롯한 재학생 여러분의 탐과 수고가 만든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6개 부문이 준비되어있다고 들었다. 역활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영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재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을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모카의 편성책임자를 맡고 있는 오종서 교수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모카가 첫 방송을 한 이후로 개국 1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 왔다."라며 "앞으로도 모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1회 모카 어워즈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모카를 소개했다.

먼저 다큐멘터리 부문 시상자는 JTBC 박영준 디렉터가 맡았다. 심사 기준과 총평에 관해 "대학생 작품이 이렇게 훌륭할 수 있나? 심사 기준은 한 가지이다. 작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봤고 이는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했

다. 수상작은 다큐호스이다. 수상소감으로 "역사적인 모카 어워즈에서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 같이 고생한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라고 언급했다.

비 다큐멘터리 부문 시상자는 채충현 차장이 맡았다. 그는 "비 다큐멘터리의 수상작 등 대부분이 웹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트렌드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다."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경사 난사 남매가 받았다. "영상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도움을 주신 오종서 교수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고, 작품을 통해 많이 배웠던 것 같다. 같이 한 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고 후배들도 모카 어워즈를 빛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지역 콘텐츠 부문 시상으로 주재철 부국장이 맡았다. 그는 "먼저 작품을 보면서 아주 좋았던 점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짜여있는 부분이다. 영상미,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촬영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전체적으로 봤다. 부산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이웃은 동래입니다'이다. 수상소감은 "상 주셔서 감사하다. 줄

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팀원들도 수고 많았고 오종서 교수님도 도움 많이 줘서 감사하다."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안에 있는 미디어 아웃렛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주제의 영상이 나왔다. '찍다'라는 주제로 강병철 외 7명이 제작했다.

커뮤니케이션기획 부문의 시상상은 에드맥스 강수복 본부장이 맡았다. 그는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기획이 참 어렵다. 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기획은 힘든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심사 기준은 이 문제가 왜 나왔나에 대한 숨은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수용성에 대해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악삭해줘' 캠페인이 받았다. 수상소감으로 "저희가 받을 줄 몰랐다. 같이 고생한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크리에이트 부문에는 디자인 학부 안병진 교수가 맡았다. "작품을 꼭 보면서 촬영기법, 진정성, 전달성, 조율성, 심미성으로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수상작으로 아난 티 코보 홍보영상이 받았다. 수상소감은 "좋은 환경과 좋은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부문은 특별상 부문으로 가장 많은 좋아요와 시청률을 받은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으로는 김 현 교수가 맡았다. 그는 "특별상은 여러분들이 주는 상이다. 일종의 인기상이라고 생각한다. 518개의 좋아요를 받은 작품이 선정됐다."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우리 동네 서구가 받았다. 수상소감은 "방송 시상은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상을 받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럽다. 고생한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 축하공연은 특별히 개설된 모카 밴드가 공연했다. 모카 밴드는 오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것으로 제1회 모카 어워즈 기념식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2018 동서대 학술엑스포 열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장기를 선보여

지난 10월 26일 동서대학교에서 학술엑스포가 열렸다. 참여하는 학부는 ▲글로벌경영학부 ▲외국어계열학부 ▲국제통상물류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복지학부 ▲보건 의료 계열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화학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레포트과학부 ▲임권택 영상예술대학 ▲동아시아학과 ▲건축도목공학부 이다. 학술엑스포는 전공별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날이다.

글로벌경영학부와 외국어계열, 국제통상물류학부는 각각 '아시아지역 비즈니스 체험사례 성과 발표회' '해외연수 참가 체험기 발표회' '글로벌 커리어 개발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체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학부는 연구회 연합 학술제,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은 학생작품 영화제, 동아시아학과는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을 열어 상대방 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는 영상문화 전공 문집 '문득 글을 쓴다' 전시회를 열었다. "정답을 맞추면 안 잡아먹지!"라는 컨셉을 잡았다. 문장 뒤에 영이 들어가는 퀴즈를 맞추면 떡과 인형을 주는 퀴즈형 부스로 진행했다. 광고PR전공은 학부연구회, 칸 라이언즈 크리에이티브 전시회를 열었다. 오전 9시 30분부터 광고PR전공 졸업작품 발표회가 열렸다. IMC본부-PR본부 총 11팀 발표했다. IMC본부는 6팀이 레디



▶미디어 아울렛. 칸 크리에이티브 전시 사진들

쥬 셔, 서브웨이, 던킨도넛, 좋은데이1929, 필라이트, 여행박사라는 주제를 각각 담았다. PR본부는 5팀이 발표를 맡았으며 길고양이 캠페인, 당신의 선택, 육아일기, 건전지적 작가시집, 자궁경부암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길고양이 캠페인은 디자인 건물과 뉴미디어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에 길고양이 전용 밥그릇과 물그릇을 설치하여 직접 실행한 캠페인이다.

광고PR전공 김현 교수는 "저는 IMC, PR은 김주용 교수가 담당했다. 공통적으로

문제는 IMC 기획서 대부분이 목표가 없다.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게 자주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래서 IMC 팀에서는 대부분 뭘 하겠다는 목표 설정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학생에게 몇 부분 얘기를 했다."라며 쓴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4학년들이니 조만간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기획서를 많이 접하고, 본인들이 직접 써야 한다. 그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상적인 면으로 썼으면 좋겠다. 수고했다."라고 말을 전했다.



▶디지털콘텐츠학부의 모습

칸 수상작 영상 상영은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됐다. 칸 국제 광고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3대 광고제 가운데 하나이다. 1953년에 창설됐으며, 칸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의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린다. 또한 현지에서 주목받았던 광고 수상작들을 보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만들어진 광고를 볼 수 있다.

미디어 아울렛에서 광고PR 연구회 부스, 방송영상 연구회 부스가 열렸다. CM 연구회 회장은 '메리 CM이라는 주제로

미리 크리스마스를 컨셉을 잡았다. 10월에 만나는 12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느낌으로 부스를 운영했다."라고 말했다. "어떤 컨셉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연구회 회원들과 회의를 통해 진짜 산타를 찾아라, 루돌프를 이겨라, 염서 쓰기를 진행했다. 3가지를 통해 즐거움을 드리고자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참여 유도를 위해 산타 복을 대여하거나, 크리스마스 용품을 사고, 벽면에 크리스마스 영화를 재생하는 방식을 취했다.

광고패인 회장 이윤지 학생은 "저희는 광고 전공인만큼 광고와 관련된 게임을 두 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광고 카피 맞추기', '씨얼송 맞추기'입니다. 이 두 가지게임을 통해 광고 전공뿐만 아닌 방송 전공 학생들도 광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인물 퀴즈'와 '미스터리 박스'와 같은 TV예능에서 인기 있는 게임을 통해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을 전했다.

디지털콘텐츠학부 제15대 학부 대표 문동민 학생은 "2018 디지털 콘텐츠 학부 학술제는 '유달리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일 년 동안 흘린 땀방울을 녹여낸 학술제에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학공학부는 10시부터 응용 공학과 6층 406호에서 진행됐다. 화학공학부는 연구회 연구 논문 발표 및 성과 발표를 하고, 식품영양학과 연구논문 발표 및 포스터 전시를 했다. 글로벌생명공학과는 직접 효소를 이용하여 맥주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고 온도, 양 등의 실험 조건을 달리하여 직접 맥주 만들기를 참여한 결과를 전문 영어로 발표했다.

2018 학술제는 그동안 열심히 해 온 성과를 뽐내고 보상받는 날이다. 이날 장제국 총장이 몇 개의 학부를 돌며 부스 체험을 하기도 했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2018 민석 축제, 동서 학생들 하나 돼

동서대 운동장서 청춘의 열기 피어나



▶2018 민석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



▶소원나무에 소원을 달고있는 학생들



▶버블 슈트를 즐기고 있는 동서 학생들



▶동서가왕 최종 결승자



▶경호 시범단



▶댄스동아리 Black 공연



▶모두가 총학생회 무대인사



▶초대가수 공연

지난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교내 운동장에서 2018 민석 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먹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다양한 부스 등으로 진행됐고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무대의 불꽃놀이로 이어졌다.

각양각색의 부스들은 운동장 양쪽 끝대 근처에 자리 잡았다. 운동장 강단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소원나무, 버블 슈트 체험, 도전 100곡 등의 부스가, 우측에는 학생들이 직접 판매하는 플라마켓이 위치했다. 그 외 운동장을 감싸고 있는 여러 푸드트

럭도 있었다. 푸드 트럭에는 다코야키, 스테이크, 추로스 등을 판매 했다. 특히나 화학공학부 식품영양학과 장영동아리 푸디어스에서 졸업한 선배의 지원으로 명량 핫도그를 판매한 것이 큰 인기를 얻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오후 5시 30분쯤에는 동서가왕을 시작으로 경호시범단, 개회식, 동서가왕 파이널, 동아대 댄스팀, 동서대 댄스팀, 총학생회 인사, 가수 공연이 이어졌다. 동서 청춘들의 젊은 열기는 쌀쌀한 가을바람도 떠나게 했다.

이번 축제의 콘셉트는 '프로듀스 DSU, 당신의 학우에게 투표하세요.'이다.

모두가 총학생회는 결승에 올라갈 3인을 투표해줄 동서 프로듀서를 사전에 신청을 받았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동서 프로듀서는 몇십 명과 겨루어 예선을 통과해온 총 11명의 동서 학생들을 투표했다. 11명의 학생 중 결승에 올라온 3명의 학생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도연, 김민규 학생과 디자인학부의 김소현 학생이었다. 최종 동서가왕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휴대 폰 문자 투표로 직접 선정했다. 학생들이

뽑은 동서가왕에는 디자인대학 김소현 씨가 등극했다. 3등을 거머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도연 학생은 "제 인생의 원동력인 광고 페인 후배님들, 선배님들, 동기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노래를 들어주신 모든 동서대 학생 외 관중 분들께 감사하고 저를 찍어주신 전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서대!! BDAD!"라며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소감을 전했다.

동서대 경호시범단과 동아리 블랙은 축제의 열기를 더 돋우어 줬다. 경호시범단

은 유도와 찰점곤 등의 운동에 재치와 일상적 상황을 더해 학생들에게 감탄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동아리 블랙은 그동안 갈고닦아온 댄스 실력을 뽐내어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다.

이어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는 불꽃이 터짐과 동시에 중간고사로 준비로 쌓인 학우들의 스트레스도 날렸다. 또한 투빅, 불빨간 사춘기, 사이먼 도미닉 등의 가수들이 차례로 나서 동서대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올해의 큰 행사를 기획했던 모두가 총학

생회는 다 같이 무대에 나와 아쉬움과 더 나은 동서대학의 미래를 함께 나아가자 선포했다.

2018 민석 축제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동서 청춘들의 열기로 서로를 따뜻하게 해준 축제가 됐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운동장을 가득 메운 동서의 학생들은 중간고사 준비로 쌓인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면서 "다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라며 거침없는 기개를 과시했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장제국 총장,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줘

‘제국의 아이들, 외치다’, 카르페디엠 동기유발 러닝 콘서트 열려



▶학생들과 문답을 하고 있는 장제국 총장



▶토크 콘서트 단체 사진

지난 2018년 10월 5일 동서대학교 교수 학습 개발 센터에서 '제국의 아이들, 외치다'라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장제국 총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카르페디엠 동기유발 러닝 콘서트라는 부제도 달렸다. 카르페디엠이란 라틴어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 하라'라는 뜻이다.

토크쇼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사전에 질문서에 적어 제출한 후, 장제국 총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제국 총장 직접 무대에 올라 학생들에게 '사람마다 가지고 타고난 교유의 가치와 달란트는 다 다르다. 남이 잘하는 것을

따라 하지 말고 본인이 잘하는 것 찾아 그 가치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해봐라'라며 당부 했다.

장제국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세계 젊은이들이 꿈과 욕망이 없는 저 욕망사회로 가고 있다. 즉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꿈도 없어지고 4차 산업시대에 주역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 했다.

장제국 총장은 학생들의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줬다.

▲대학 4년 동안 학업 외에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요.

"저의 경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초기에는 주류사회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영어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아시아 학생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그들과 점점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목표에 점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목표 사이의 간격을 점점 좁혀나 가면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동서대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목표를 잘 세워서 학업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어 가고, 대학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총장님은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였는지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고 대단히 활동적인 학생이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고 또 한인교회 청년회 활동을 했다. 정말 바쁘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동서대학교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학생이 더러 있어 안타깝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적인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한다."

▲총장님은 대학생들 중 후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다양한 과목들을 두루 더 많이 들었으

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는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쉬운 과목을 골라 들었던 적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이 점이 후회된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 분야에서 배움의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특히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은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바란다. 4년의 계획을 잘 세워서 대학생활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외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요.

"동서대학교에는 수많은 해외 프로그램이 있고 연간 1000여 명의 동서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다. 프로그램

자격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에 지원하고, 미국 SAP의 경우는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Reset 전형으로도 선발될 기회가 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타고난 교유의 가치와 달란트는 다 다르다. 남이 잘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아 그 가치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해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미래형 대학으로 체제 전환을 진행 중인 동서대학교는 대학 최고 경영자와 학생들 간 물 흐르듯 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지은서 기자
eunseo9830@gmail.com

토목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자!

다양한 활용 가능한 토목 자격증 추천



▷사진출처 - 네이버 카페 '스쁘'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불량자재를 처리하는 등의 현장 업무를 많이 수행한다.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라 모래, 자갈, 물의 혼합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또는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고 표준제를 사용하여 입도별로 분류하고, 채취된 샘플시료에 대해 각종 실험을 통하여 물성치를 구하는 직무를 행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토목과 및 건축과를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또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 돼야한다.

응용지질기사

응용지질 분야는 지각의 조성, 성질, 구조, 역사 등을 다루는 지질학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초학문으로서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각종 토목공사, 환경보존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율적인 지하자원 개발 및 해저자원 개발을 위하여 광산, 탄전, 유전의 발견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응용지질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응용지질기사는 지각의 성분과 구조, 암석, 동식물의 화석을 검사하여 광물을 검사, 분류하고 광산의 탐사적 산출 가능성을 계산하여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굴방법

을 결정하며, 시공,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하고, 실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 돼야한다.

측량기사

측량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측량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측량 업무는 공원이 나 도로, 유원지, 아파트 단지 등의 도시를 계획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측정 업무를 통해서 공사의 방향과 크기를 측정하게 된다.

측량기능사는 현장에서의 측량 업무를 돕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자격이다. 측량기능사는 현장에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및 산업기사의 작업을 보조하여 지정한 장소에 막대기를 세우며, 일정한 높이까지 막대를 박고, 측량선 근처의 나무나 풀 등을 자르거나 제거하는 등 주위 환경을 정리한다. 또한 지표뿐만 아니라 수중, 지상, 공중 등 모든 점들의 상호간 위치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합격자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인자로 결정한다.

토목산업기사

토목공사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공공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공정관리기법이나 시공기법, 구조기술 등이 계속 도입되고 토목 신재료 개발 및 이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자격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연

구와 공부를 필요할 것이다. 토목산업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토목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 철도보전학 등을 졸업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는 설계도를 검토하여 공사의 종류, 기간 등을 확인하고 검사 계획을 작성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보조기중, 기중의 성토용 토사를 채취, 검사하여 토질이 공사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공사에 사용될 콘크리트, 아스팔트, 시멘트, 벽돌, 모래, 자갈 등의 품질이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도록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계속기 및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견본자재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과, 건설공학과, 구조공학과, 농업토목공학과, 해양토목공학과, 지질공학과, 건설토목과, 토목환경공학과, 토목설계과, 건축공학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토목구조기사

모든 토목구조물은 자중, 내용물의 무게, 풍압 등 각종 힘의 작용을 받는데, 구조물을 변형, 붕괴, 또는 진동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조물에 필요한 강도와 기능을 가장 경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토목구조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했다.

토목구조기술사는 토목구조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토목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는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산업의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토목시공기술사는 토목시공분야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경력자(9년 동일, 유사 분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 및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할 시에 합격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석공기능사

현대식 건물은 조형미를 앞세우며 면적이 대형화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석재를 현대적인 공법으로 건물 내·외벽, 바닥에 사용하고 있다. 석공기능사는 석재의 특성과 아름다운 색상을 건물에 시공할 수 있는 숙련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석공기능사는 석재를 붙여 구조물을 구축하고 불임돌, 정두리돌, 테라조, 모조석을 사용하여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타르 등으로 설치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실기시험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기준으로 둔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yoondasol73@gmail.com

청년 취업난 ‘피비우스의 피’

일을 하고 싶어요



▷사진출처 - 네이버 포스트 '운명의 장판'

우리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한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청년들의 취업난 이야기는 ‘청년 빈곤’이라는 우리의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즐기며 사는 부모 세대의 모습은 당연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부모세대는 자신들의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식부양을 하고 있다. 취업을 못한 가난한 자녀를 부양하려고 은퇴 후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월 기준으로 8.8%다. 20% 수준의 유럽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학, 대학원 진학, 유학, 연수 등 현재의 실업 상황을 회피하는 이들을 포함한다면 잠재적 실업자 수는 발표된 수치의 2배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객관적인 실업률의 수치에도 문제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는 뚜렷했다. 청년(20~30대)은 설문 조사에서 자신들의 취업난의 가장 큰 이유를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등 질 나쁜 일자리가 많아서’라고 답했다. 20대는 질 나쁜 일자리(61.0%)와 불합리한 채용구조(52.8%)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30대는 질 나쁜 일자리(59.0%)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반면 40대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내가 속해있는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를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40대는 62.7%가, 50대 62.7%, 60대 이상은 60.7%가 높은 눈높이를 취업난의 이유가 있다고 봤다. ‘질 나쁜 일자리’를 원인으로 본 경우는 40대가 36.6%, 50대 31.9%, 60대 이상은 22.6%이었다.

이런 인식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자료출처 : 서울신문
yoondasol73@gmail.com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

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열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4 대 전략	주요 과제
① 함께하는 청렴	☐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협력기반 마련 ☐ 공소추진 등 반부패 관계기구 강화
② 깨끗한 공직사회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정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구축 ☐ 공공분야 갑질 문화 개선 ☐ 공공분야 채용비리 지속 중단 ☐ 민간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③ 투명한 경영환경	☐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내실화 ☐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 공익법인의 투명성 향상
④ 실천하는 청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실효성 제고 ☐ 부패·공직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사회 각 분야 청렴 사회협약 확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표 1>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윤·오폴라민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표 1 참고)

정부 발표 이후 전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중장기 반부패 종합대책을 제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청

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Big Picture 완성에 핵심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따르면 ‘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 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가 세계 11위를 감안할 때, 51위라는 순위는 매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구분	청렴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① 20대 학생	“학교 성적평가나 학점인정이 공정하면 좋겠습니다. 교사와 제자 사이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② 20~30대 직장인	“어려서부터 청렴을 배울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청렴을 초·중·고 정식 교육 과목으로 개설하여 어떨까요?”
③ 40대 기업인	“반부패 노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청렴문화가 자연스레 확산되지 않을까요?”
④ 40대 이상 시민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방산비리 연루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표 2>

우 부끄러운 숫자이다.

국민위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렴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공개된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참고)

한국남부발전은 부산 매출 최대 기업으로서 반부패·청렴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불합리한 계약관행 고지기, 국민참여 기반 혁신정책 마련, 부패

유발요인 사전 모니터링 및 예산 부정적 사용 심사제 운영, 채용비리 청정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올해 부패인식지수(CPI) 40위로, 2019~2020년에는 30위권, 2021~2022년에는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반부패·청렴분야

4대 전략과 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정부의 목표달성과 청렴사회를 위해서는 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는 지성인의 전당이며, 대학시절은 사회 초년생이 되기 전 마지막 단계로서 청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새길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평가, 동료간 어울림의 문화 속에서 청렴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고용절벽의 시대에 청렴은 더욱 중요하다. 정직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넓혀주고 기회를 주는 기업이 많아질 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어려움이 큰 벽처럼 느껴질지라도 청렴과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더 노력할 때, 벽은 오히려 든든한 다리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보장과 실력에 의한 당당한 성공을 선물해 줄 것이다.

타 회사의 채용비리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성세대로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남부발전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위안 받고, 많이 힘낼 수 있기를 바란다.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

치와 경제에는 기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부패·청렴에 대한 신념이 우리사회 모든 청년들의 긍정적인 노력을 유인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활짝 웃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이다.

오늘날 전력산업은 다양한 대외 충격 속에서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필두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방만경영 해소,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등 다양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業의 본질에 충실해 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해 반부패·청렴은 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모범답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인간의 역사 속에 13월이나 제8요일은 없다. 불가능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환상은 달콤한 도피감을 줄지언정 희망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반부패·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상은 청렴한 대한민국과 나의 더 아름다운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 드린다.

한국남부발전 경영연구소 수석위원 김주신

하루 한번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

학업과 과제로 지친 몸 스트레칭으로 풀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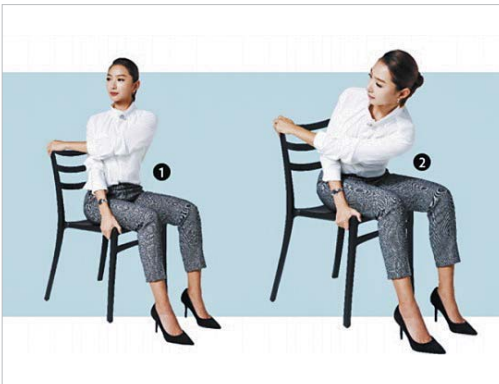
손에 꼽힐 정도로 무더웠던 지난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밤공기가 추운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려 몸이 약해지기 십상이다. 중간고사와 축제, 학술제 준비 그리고 일교차 큰 날씨로부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을 지켜줄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증상별로 알아보겠다. 간단한 스트레칭 외에도 음식을 통한 예방법, 자가진단, 바른 자세에 대한 팁이 있으니 학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길 바란다.



▷사진출처 - 풀과나무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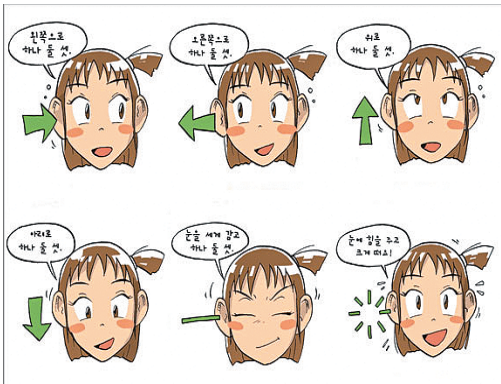
▷사진출처 - 카카오매거진



▷사진출처 - 인사아트



▷사진출처 - 연세한강병원



▷사진출처 - 네이비 블로그 Eye sha

두 통 완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정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두통' 전 인구의 95% 이상이 두통을 경험해보았을 만큼 흔한 증상이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진통 소염제로 해결할 수가 있다. 두통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이다. 정신적 긴장으로 과도한 업무 혹은 대인 관계 등 주변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통 예방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첫째 '얼굴 밀어주기' 허리를 반듯이 세운 후 반대편 얼굴 쪽을 지긋이 눌러주면 사각근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두통이 해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관자놀이 자극하기'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 부분에 많은 신경들이 있어서 자극을 받아 뇌를 재활성화 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목 근육 풀기이다. 목을 두 손으로 감싼 후에 바닥 쪽으로 꼭 눌러주면 목의 긴장이 풀리며 가벼운 두통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다. 스트레칭을 제외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면과 아침식사 거르기 말기 하루에 커피 한잔 먹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도 두통이 해소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두통약을 처방 받거나 편두통 증세를 의심해보기를 바란다. 편두통은 머리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작적이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의 일종으로 방치해두었다간 큰 진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학우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요한다.

허리디스크 예방

허리디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세에서 일어난다. 턱을 괴거나 여정정하게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디스크를 유발시키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장기간 운전이나 쪼그려 앉아 음식을 한 후에 많이 일어나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절 후에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예방 스트레칭으로는 상체 비틀기로 오른쪽 다리를 꼬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지그시 밀러주면서 시선을 오른쪽을 바라본다. 두 번째는 11자 다리와 상체 숙이기로 다리를 11자로 곧게 선 뒤 상체를 서서히 내려주는 자세이다. 허리의 지탱하는 힘을 강하게 해주며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허리디스크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첫째로 부추가 있다. 부추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며 척추와 무릎을 따뜻하게 보호한다. 또한 비타민A 철, 카로틴, 칼슘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흰 우유가 있다. 우유는 멸치와 더불어 칼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슘함유량이 많으며 이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척추 질환을 예방한다. 단백질 또한 풍부하여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이다. 표고버섯은 혈관기능 및 면역력 증진에 좋고 칼슘의 원활한 흡수에 좋은 비타민D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허리디스크는 사전예방과 올바른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심해질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 심한 질병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사전에 차단해 주는 것이 좋다.

거북목 예방

우리가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혹은 책상에 앉아서 과제를 하거나 책을 볼 때 자연스럽게 목이 아래로 굽혀진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흔히 말하는 목이 C자 형태로 굽어지는 거북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거북목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자. 거북목 예방 스트레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자가 필요한 방법과 의자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의자 없는 방법으로 머리당기기 있다. 오른쪽손으로 왼쪽편의 머리를 잡아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오른쪽편의 머리를 잡아 왼쪽으로 당기면 되는 간단한 운동이다. 5초간 5회 동안 잡아당겨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머리 좌우로 밀기이다. 오른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머리를 밀고 왼쪽 손바닥으로 왼쪽 머리를 밀어주면 된다. 이때 머리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역시 5초간 5회 동안 반복해주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깍지끼어 뒷머리에 대기이다. 양손에 깍지를 낀 후에 뒷머리를 누르며 크게 호흡을 해주면 된다. 누르면서 양 팔꿈치를 모아준 후에 등을 굽히지 않고 고개를 숙인다. 이번에는 의자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의자에 앉아 오른쪽손으로 의자 모서리를 잡고, 왼손은 등받이를 잡은 뒤 상체를 숙이는 방법으로 견갑근 근육을 늘려준다. 두 번째 방법은 깍지 낀 손으로 옆중쉬어 자세를 취한 뒤 기저개를 퍼트 아래쪽으로 꺾려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말린 어깨를 펴주며 목에 부담을 줄여준다.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현대인이 병이라고 불리는 손목터널증후군은 PC방에서 장기간 게임을 할 때 혹은 계속되는 필기를 할 때 일어나는 증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주부 직장인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증상이다.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스트레칭으로는 첫째 손목당기기 팔을 수평으로 올린 후 반대쪽 손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 두 번째로 주먹 쥐고 당기기 팔 그대로 주먹을 쥐고 밑으로 내려서 당기면 된다. 마지막으로 손가락당기기 손목을 뒤로 젖히고 엄지를 밑으로 당기면 된다. 위의 스트레칭은 손을 유연하게 해주고 손가락을 풀어주므로 손목터널증후군을 간단하게 예방할 수가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스스로 진단을 하여 자신이 손목터널증후군 인지 아닌지 진단을 할 수가 있다. 먼저 팔렌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진단법은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양손 등을 서로 맞대고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자세를 1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손목의 수근관 중심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저린 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혹은 손이 찢터찢터하거나 자세를 유지하는데 불편함을 겪는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기를 요망한다. 향후 예방 방법으로는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손목보호용 마우스, 마우스 패드를 구매하는 것도 추천한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우유, 마른밀치, 취나물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손목터널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안구 통증 완화

장시간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 다들 안구 통증을 한번쯤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이 역시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눈알 돌리기이다. 텔레비전에서 개그맨 이경규씨가 많이 하는 개인기로 눈을 감았다 뻗았다 수차례 반복한 후에 눈을 떴을 때 위아래를 봐주고 눈을 감았을 때는 눈을 상하좌우로 돌리면서 눈 근육을 풀어주고 완화해준다. 두 번째는 눈 마사지이다. 양 손을 수차례 비빈 후에 두 손을 편 채로 양 눈위에 올리고 안구를 상하좌우로 가볍게 돌리면 된다. 그 외에도 안경과 렌즈의 지속되는 탈부착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잠을 잘 때는 안경과 렌즈를 벗어주는 것이 좋다. 음식으로는 비타민A가 풍부한 토마토나 당근을 주기적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시력이 나빠진 건 아닌 거 같은데, 시야가 흐리고 눈앞이 흐리게 보인다면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안구 건조증은 눈이 필요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눈물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돌린 따뜻한 수건을 눈에 올려 눈점질을 해주거나 인공눈물을 눈에 넣어주는 것이 좋은 대처 방안이다.

임지성 수습기자
limjisung0128@gmail.com

모르면 손해! 돈 버는 장학금 ‘꿀 팁’

학생들은 매 학기 개강 일주일 전부터 시름에 빠진다. 바로 뭇백만 원이 훌쩍 넘는 학비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감당해 내기 벅찬 학비에 부모님의 등골도 같이 휘어간다. 이런 학생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방법은 없을까? 현재 동서대 내에는 다양한 장학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뭇돈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지금부터 학비 걱정을 줄여줄 장학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입생을 위한 장학제도

먼저 신입생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은 ▲My Bright Future 장학 ▲입학 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교육 역량 강화 장학 ▲특기자 장학 ▲신입생 학부 수석 장학 ▲신입생 동서미술대전 및 동서 영어스피치대회 수상 장학 등이 있다.

#성적에 자신 있다면

My Bright Future 장학의 경우 모집 시기별 전체 수석 합격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입학금을 포함하여 졸업 시까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장학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신입생 학부 수석 장학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1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위의 두 장학제도의 경우 평균 평점이 3.5 이상인 자에게만 계속 지급된다. 입학 성적 우수장학은 모집시기별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한 학기

수업료 반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입생 교육역량 강화 장학은 입학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입학금을 면제해준다.

#특기자 있다면

특기자 장학은 예체능 분야의 학생이라면 주목해 볼 만하다. 예체능 분야의 우수한 학생이 본 학교에 입학할 경우 4년간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동서미술대전과 동서스피치 대회 수상자들은 신입생 동서 미술대전 및 동서영어스피치 대회 수상 장학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장학종류는 매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회 요강'을 참조하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재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특별장학 ▲동서 가족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장학 ▲교육자 장학금 ▲기독교 교역자 장학금 ▲형제·자매 장학금 ▲봉사장학금 ▲모범장학금 ▲사할린우수인재 장학 ▲동서 글로벌 프로그램 ▲어문계열 학점인정 어학연수 프로그램 장학 ▲미국 SAP 장학 ▲중국 SAP 장학 ▲소망장학금 ▲저소득 장학금 ▲동서 리더 장학 등이 있다.

#특별장학

특별장학이란 본교 건학이념과 4대 교육지표를 충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으로 21세기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별 항목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어 분야에선 토익 900점 이상, JPT 800점 이상, 신 HSK 6급 이상이면 해당한다. 외국어 실력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추천한다. 또한 정보 교육 분야에선 IT 관련 전국규모 대회 1위 입상자 및 장관상 수상인 자, 산학협동교육 분야에선 지적재산권을 등록한자와 학생창업을 한 자가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동서인 및 인성교육 분야에 있어 대통령 혹은 장, 차관 표창을 받은 자와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높인 자도 특별장학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졸업 시까지 1회만 수상 가능하다는 점과 이중 수혜제도가 있는 장학금을 수령 한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 장학

본 대학교 교직원외 자녀라면 동서 가족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교직원 직계 자녀 1인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나머지 1명에게는 2급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인 산하 교직원 자녀라면 직계 자녀 1인 2급 장학금을, 2인 이상인 경우 나머지 1명에게는 3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 비슷한 교육자 장학금도 있다. 본 대학교 교직원이 아니라라도 본인이 교육자거나 부모님이 교육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경우 학기 초 학부 사무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장학은 보훈법에 따라 본인이 국가 유공자이거나 부모님에게서 국가 유공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이란 성적 기준을 충족할 시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장학금은 형제, 자매 2인이상이 동서대에 재학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2인 이상 재학 중 등록을 필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2.5 이상일 경우이다. 둘 중 연장자에게 3급 장학금을 지급하며 형제, 자매가 3인 이상 재학 중인 경우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 및 장학금 지급은 학기 초 학생처 장학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한다.

#봉사 장학금

봉사 장학금은 일반봉사와 특별봉사,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봉사로 나뉜다. 일반봉사 장학금의 경우 부서나 각 학부에서 봉사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다. 각 학부 및 부서에서는 봉사 학생이 필요할 경우 매년 2월 초, 6월 중순, 8월 초, 12월 중순에 학생처에 공문을 통보한다. 이것을 참고하여 시기에 맞춰 학부사무실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특별봉사 장학금의 경우 교내의 환경미화 및 손발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다.

#모범 장학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위한 모범 장학

금도 있다. 모범장학금은 평점 평균 3.5 이상으로 근면 성실하며 인성 등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취득학점 기준으로 1, 2, 3학년은 15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 지도 교수 및 학부장 추천 후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1급은 등록금 전액, 2급은 반액, 3급은 전액의 25%로 급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면제 대상이 된다.

#가정환경이 어렵다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는 소망 장학금과 저소득 장학금이 있다. 먼저 소망 장학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재학생이면서 본인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인 경우 해당한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성적이 80점 이상인 국가 장학금 1유형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장학금은 저소득 조건과 장학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인 자에게 수업료 일부를 지원한다. 그리고 의 장학금인 국가 근로 장학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재단 소득 기준을 통과한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 근무 후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내 근로는 시간당 8,000원, 교외 근로는 시간당 9,500원으로 평균 시급인 7,53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해외 어학연수나 SAP를 준비 중인 학

생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장학제도도 있다. 동서 글로벌 프로그램의 경우 1학년 신입생 중 동서 글로벌프로그램 선발 계획에 따라 선발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년간 성적 3.5 이상인 학생들에게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1, 2, 3급 차등 지급한다. 글로벌 프로그램의 특전으로 하계방학 기간 미국 자매 대학교에서 어학연수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등 어문계열 학점인정 어학연수 프로그램 장학이 있다. 해당 학과 전공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해외 자매대학 교육에 필요한 전체 경비의 30%를 지원한다. 경쟁이 치열한 미국 SAP 장학의 경우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연수대학의 수업료 전액과 항공료, 기숙사비 전액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SAP는 미국 SAP와 조건이 같지만, 항공료 지원은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동서대 장학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일찍 알아낸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말처럼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잡기 어렵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등록금도 아끼고 학비 걱정을 줄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

박가희 수습기자
pgh0419@gmail.com



끝날 것 같지 않던 길고 길었던 더위와 여름방학 여러 번의 태풍과 태풍처럼 지나간 중간고사가 끝나고 입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추운 계절이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인 것 같다. 학업 스트레스와 억압된 자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었다. 또 그에 맞추어 나의 외면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도 같이 변화해 온 것 같다. 일단 외면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안경을 벗기 위해 라식수술을 감행해왔다. 수술하기 전에는 다소 긴장도 되었지만 막상 하고 나니 너무 편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내면적으로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항상 시간에 쫓겨 바쁘게 움직여 왔다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는 대학시절에는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해왔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 것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학교를 새로 입학한 후 힘든 점도 물론 있었다. 매일 수업을 듣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약 1시간 정도를 지하철을 타고 오면 엄청난 경사와 높이의 언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한 시간짜리 수업을 듣기 위하여 학교를 오는 날이면 그것은 정말 학교를 가기 싫었다. 또 중등학교 시절과 마찬가지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주상우(화학공학부·1)

시험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중등학교 시절과 다른 형태의 과제들이 나의 머리를 감싸게도 하였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중간고사와 학점을 위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다닌 결과 대학 측제가 찾아왔다. 처음 겪는 대학 측제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가장 놀랐던 것은 불꽃놀이였다. 대학 측제 불꽃놀이이라 해서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순간 부산불꽃축제에 온 것만 같은 착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가수 공연이었다. 평소 애 좋아하던 '볼빨간 사춘기'를 비롯해서 '투박'과 '쌈디'의 공연을 직접 본 것은 마치 꿈만 같았다.

중간고사와 측제를 마친 후 기말고사 시험 기간 전까지는 많이 여유가 남아 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헬스를 해서 몸을 키울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아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학생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출석이다. 출석은 성적의 기본이며 교수님에 대한 예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1학기 때 중간고사 이후 나타내려 이런저런 핑계를 댈며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많았다. 그 덕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과목도 출석 문제로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

만 2학기 때 들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 결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 한 번도 수업에 빠진 적이 없었다. 1학기 때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는 측제와 휴식기로 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활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비록 두 달이 지나면 한 해가 마무리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나를 포함한 다른 학우들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인사이다. 대학교에 와서 새롭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우리를 가르쳐주신 교수님들을 만날 수가 있다. 비록 짧게 만난 친구나 스쳐가는 친구 혹은 수업을 듣지 않는 교수님이라도 꼭 인사를 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되면 안 만날 사람인데", "인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무언이 되었든 인사를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진다. 물론 가끔가다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오기를 가지고 언제까지 안 받아주나 보자 하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인사를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인사를 받아 줄 것이다. 비록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작은 인사가 미래에 큰 인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닐까?

죽비소리

2학년을 보내며

이수현(방송영상·2)

2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나는 나의 1학년을 너무 허투루 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의 1학년을 학교와 집,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온 1학년 새내기 학교생활은 내가 꿈꾸던 대학 생활과 매우 달랐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다. 이는 곧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집에 가기 바빴고 아르바이트를 핑계 삼아 학교 행사에도 빠지기 일쑤였다. 그런 나에게 1학년 여름과 겨울 2번의 방학은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려 했다. 역시나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길게만 느껴졌던 1학년의 시간을 지나 그렇게 나는 2학년에 접어들었다.

2학년이 된 지금 나는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보낸 시간을 후회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대학은 더 이상 지루하기 만 한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줬으며 사회로 나가기 전 발판을 실 틈 없이 마련해 주었다. 2학년 1학기는 내가 선택한 전공이 진정 어떤 것인지 알려줬다. 2학기는 이 과정을 토대로 나를 더 키워나가는 시간을 만들어줬다. 2학년의 여름방학 역시 막연하게 하나의 직업만을 보고 달려왔던 내게 여러 가지 직업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직업에 대해 공

부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길게만 느껴졌던 1학과 달리 2학년은 과제 하나를 끝내면 한 학기가 끝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짧고 빠르게 지나갔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2학년은 나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했으며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렇게 끝나면 언제나 집에 가기 바빴고 아르바이트를 핑계 삼아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벌써 대학 생활의 반이 지나가 버린 것이다.

앞서 나의 1년이 허망하게 지나간 것을 교훈 삼아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나는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을 해보았다. 허투루 보내던 1년의 학교생활 채울 수 있도록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 성실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나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기르는 시간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그리고 다가를 겨울방학을 활용해 여행을 떠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독립성을 쌓을 예정이다. 또한 영상 공부할 하며 보다 나은 직업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2학년 생활을 잘 마무리한 뒤, 다가를 나의 3, 4학년은 어떻게 걱정보다 기대가 앞선다. 3, 4학년은 사회에 나가기 전 내가 갖게 될

직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는 그에 맞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여러 대회 활동을 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쌓은 스펙으로 지금 내가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듯이 나 또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내가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방학하는 1년을 보냈을 때 나는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알지 못했기에, 지금처럼 생각이 정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나머지 방향하는 사람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와 같은 1학년을 보내고 있을 후배들에게 1학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지금은 1학년이 지루하고 느리게만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은 나중을 위한 스타팅 블록과도 같은 시간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 나중에 합당한 시기가 닥쳐왔을 때, 기댈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다면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학교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대학 생활은 달라진다.

이달의 명언

많은 공부와 지식이 곧 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고대 그리스 사상가)

우정용 끝낼 수 있다면 그 우정은 식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성 제후(그리스교도의 성인)

시간을 도구로 사용할 뿐, 시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존 F. 케네디(전 미국 대통령)

네 컷 만화

과제 폭탄



새로운 4컷 만화와 만평을 그리게 된 디지털 콘텐츠 학부 3D 애니메이션 트랙 정희진입니다. 4컷 만화는 우리 학교 학생인 디지털 콘텐츠 학부 진희, 간호학과 하서(진 머리), 경찰행정학과 지은이(짧은 펴의 학교생활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사 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특별한 진입 장벽 없이 누구나 많은 영상, 글 등을 생산·가공하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됐다.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자를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며, 곧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1인 미디어 열풍'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다양한 창작 콘텐츠들은 하나의 문화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힘이다. 이러한 1인 미디어들은 온라인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관계 맺기, 평판, 추천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1인 미디어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거나 상호적인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1인 미디어 방송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가 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살하는 노래로 가사가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산소만 남비해. 나는 밥만 먹는 식충. 나는 개 멍청이"

이다. 이 충격적인 내용과 욕설을 담은 가사의 동영상은 무려 약 146만 회의 조회 수를 보여주면서 어린이들 입에서 유행처럼 불리지고 있었다. 필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촌 동생이 흥얼거리며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엔 밝은 멜로디의 노래였기에 가사를 잘 못 들은 줄 알았다. 이처럼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방송을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민낯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1인 미디어 방송 창작자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고 혹은 부적절한 마케팅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자신의 방송 콘텐츠와 내용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들이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중국 등이 있다. 중국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가장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국가

1인 미디어 열풍 속, 규제와 자유

중 하나로 중국에서 인터넷 생중계 플랫폼 시장이 발 빠르게 성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왕홍(인터넷을 뜻하는 중국어 wang, 인기를 뜻하는 중국어 hong을 합친 용어)이 제공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중국 문화부는 2016년 7월에 '인터넷 공연 관리 업무 광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중국은 인터넷 생중계 사업 허가증을 획득해야 방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에 따라 중국 문화부는 인터넷 문화 활동에 관한 방송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26개의 명단을 발표하고 위반한 방송을 규제한다. 영국은 인터넷 방송을 유사 TV 콘텐츠로 인식하는 국가이다. 영국 방송 통신 규제 기관인 Ofcom은 2016년 1월에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대한 증오감을 선동할 수 있는 내용의 혐오 발언을 금지했으나 일반적인 논쟁, 비판, 조소나 반감 노출 등은 표현의 자유로 생각하고 허용하기도 한다. 광고를 할 때에는 유행성을 판

별하기 위해 은밀한 광고 기법인 '서블리미널 메시징'을 금지하며 1인 방송에 대해 규제했다. 미국에서는 1인 미디어 규제에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나 광고성을 띠는 콘텐츠들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7년 9월, 광고 영역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추천과 보증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광고주 사이에 물질적 연결 관계(금전 지불, 제품 무료 제공, 친인척 관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성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다른 나라들의 1인 미디어 방송 규제 지침처럼 우리나라도 확실한 방송 규제 지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방안들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1인 미디어 창작물에 대한 '자율성'의 목

표를 무시할 수는 없다.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창작자들에게 방송 매체의 특성이 가지는 공공성과 건정성, 공적 책임을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1인 미디어 창작에서의 '동영상'은 방송이라고 할 수 없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좀 더 생각해보면 규제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역차별로 다가올 수도 있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활발한 플랫폼이다. 이러한 유튜브 내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규제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 당할 수 있다'라는 역차별을 발생시킨다. 규제와 자유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현실을, 우리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보면서 마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다.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다양한 1인 미디어 창작물들을 보는 입장에서라도, 창조하는 입장에서라도 사회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해보면 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목회칼럼



유 의 신 교목실장

중간고사를 끝내고 반환점을 돌아서 학기말로 가고 있다. 지난 학기 동안의 실패와 실수에 대한 나쁜 추억으로 실패감과 자괴감으로 의욕 상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러나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일어설지 못하게 되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한 발 자국도 나아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말 四子成語 가운데 병가지상사라는 것이 있다. 당나라 헌종(憲宗) 때의 이야기다. 회서(淮西) 지방의 절도사(節度使) 오원제(吳元濟)와 싸움을 나섰던 장수가 패하고 돌아오자 신하들은 오원제와의 싸움에 부담을 느끼고 이 싸움을 말렸지만 헌종은 '승패병가지상사(勝敗兵家常事)'라는 말로 개혁신을 계속할

반환점을 돌아서

의지를 보였다. 이 뜻을 전해 들은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헌종(憲宗)의 이런 노력 덕분에 당나라는 일시적이지만 중흥기(中興期)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뜻은 '싸움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한번 졌다고 포기해버린다면 큰 대의를 이룰 수 없으므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작은 승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내일의 성공과 승리로만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는 자동차 사고의 처절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 파편으로 인한 사고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전유리 개발을 하기 시작했으나 한번이 실패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고장이나 실패실을 오가며 난장판을 만든 것을 치우다가 깨지지 않은 비이커(beaker)를 발견하고 분석해 보니 오래 전에 담겨온 셀룰로이드(celuloid) 용액이 말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유리에 셀룰로이드를 입히거나 유리 사이에 발라서 안전유리를 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신용카드

이야기이다. 후불카드 시조인 다이너스 클럽 설립자 맥나마라(Frank McNamara)가 단골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자 실수로 지갑을 못 가져온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당황했던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신용만으로 후불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게 되어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우리로 실패하고 실수했던 일들이 우리의 기회가 되도록 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주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우리에게 무한 지혜를 리필 해 주신다고 하신다. 남은 학기를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동서인들이 되기를 기원 드린다.

신약성경 야고보서1장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If any of you lacks wisdom, he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him. (NIV)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인터뷰1-제페니즈 카페 매니저 김현주씨

‘새로 바뀐 제페니즈 카페로 오세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곳, 제페니즈 카페



▶맛있는 원두를 커피를 뽑는 김현주 씨



▶새롭게 단장한 제페니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잘 추출한 커피 냄새가 먼저 반기는 곳, 바로 제페니즈 카페이다. 2018년 10월 1일 새로 리뉴얼 해서 오픈하게 된 제페니즈 카페 안에는 이미 많은 학생으로 북적북적했다. 새로 바뀐 제페니즈 카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커피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지 알기 위해 제페니즈 카페 매니저 김현주 씨를 인터뷰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페니즈 카페가 새로 리뉴얼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A. 예전에는 현금결제밖에 안 되어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카드 결제까지 받고 있고, 인터리어 자체가 오래되어서 색깔이 칙칙했는데 저희가 인터리어를 새로 다시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자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외관 전장이나 페인트질을 깔끔하게 했고, 커피 기계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Q. 제페니즈 카페에서 어떻게 근무하시게 되었나요?

A. 원래 개인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서 다니던 커피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가게를 판매하고, 창업을 위해 가게를 구매할 수 있는 회사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제 가게 개인 가게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준비를 하던 와중 점장님이랑 10여 년 전에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장님이 가게를 받아서 하시다 보니깐 저에게 연락이 달아서 부탁하셔서 이렇게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가게가 바뀌려고 하면 준비를 방학 동안 해서 새 학기 시작에 오픈을 해야 가장 좋지만, 저희는 한 달 가량 장사를 하고 있고 인터리어와 메뉴를 리뉴얼 하여 10월 1일 정식 오픈 기간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Q.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 어떤 원두를 쓰시는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A.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원두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프레소 전문점에서 쓰는 재료

가 있고요.

하나는 인스턴트로 먹던 재료가 있는데 둘 다 커피지만 하나는 향이 뛰어나고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칠맛이 있어요. 저희는 카페에서 사용하는 '아라 비카종'이라는 냉커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손님이 드시고 어떤 커피가 많이 나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커피 뽑는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핫이랑 아이스랑 커피 뽑는 양을 달리해서 뜨거운 커피는 드시고 난 후 후식나 뒷맛에서 입에 불쾌한 향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불쾌한 향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커피 양을 조절해서 뽑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아이스 원두를 따로 물량을 다르게 해서 커피를 뽑고 있습니다. 원두 선택도 중요하지만, 원두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커피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커피는 신선해서 좋지만,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커피는 볶은 날짜나 날짜에 따라서도 맛이 왔다 갔다 하므로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한 두 번씩 테스트를 해서 일정하게 커피의 맛을 내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뽑아 테스트 하고 있고, 최소소 매일 하고 있습니다.

Q. 커피에 대한 지식이 정말 수준급 이상인데 관심이 있으셔서 배우셨나요?

A. 관심이 있어서 배우기도 배웠지만, 저는 커피 관련 직업으로 많이 근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이라기보다는 커피를 10여 년 넘게 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고 하다 보니깐 훨씬 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음식이나 맛을 내는 직업은 손님에게 일정한 맛을 제공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피를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커피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지면 관리 부분에서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Q. 근무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화가 있으신가요?

A. 아직 한 달도 안 되어서 많은 일화는 없지만, 커피를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 학생이 있었어요. 하루에 커피를 5잔 드시는 분이 3번 4번 저희 카페 커피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3~4번 방문해서 드시는 걸 보고 보람이 있었던 일화가 있었습니 다. 그 외에도 저는 손님의 취향을 기억하려고 해서 자주 오시는 분의 취향을 파악하려고 해요. 단 음료를 좋아하셨는데 시럽을 더 넣어 드시는 걸 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달게 해서 드린단든지 커피가 쓰다는 얘기를 하셨다면 다음에 커피의 맛을 조절을 해드린단든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제페니즈 카페에서 꼭 추천하는 메뉴는 있으신가요?

A. 커피랑 케이크요. 특히 아메리카노랑 치즈케이크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치즈케이크는 치즈 맛이 진해서 인기가 있는 치즈케이크고, 또 하나는 복숭아 아이스티입니다. 복숭아 아이스티는 홍차를 직접 우려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끝 맛이 깔끔해요. 너무 달지만은 않은 이유가 홍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숭아 아이스티도 추천해 드릴게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페니즈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알려주세요.

A. 이번 학기는 3~4개월 영업을 하지만 가 오픈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했지만, 저희의 마음가짐은 가 오픈이라 생각해서 손님이 요청하시는 것 남기시는 것을 기억하고, 조절해서 내년에는 수정된 메뉴로 제대로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앞으로도 메뉴를 더 늘릴 계획이고요. 오픈한지 얼마 안 되어서 같이 실력을 쌓아서 성장해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메뉴를 제공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희진 수습기자
jhn2087@gmail.com

■ 인터뷰2-동서대 신문사 차기국장 이주원

동서대 신문사의 새로운 리더

지금껏 일 한 것 보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신문사 국장이 2019학년부터 바뀐다.



▶동서대학교 신문사 정기자 이주원 학생.

이번 인터뷰는 차기 동서대학교 신문사 국장, 현 부국장인 이주원 학생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는 산학협력관 건물 대강당 위에 위치하고 있다. 잘 모르는 학우를 또한 있을 것 같은데 학교의 주요 소식 및 여러 이벤트 또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맡고 있는 신문사의 국장이라는 자리 또한 많은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인터뷰는 2019년도부터 동서대학교 신문사를 이끌어갈 이주원 학생을 동서대 신문사가 인터뷰해 보았다.

Q.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영상전공 2학년 이주원입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현재 부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Q. 신문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A. 학교의 일이나 학생들의 활동 등을 취재하여 알리고 사실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동서대 신문사는 수습기자들과 정기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매 월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신문을 내기위해 아침 회의와 오후 회의를 거쳐서 주제가 정해지면 마감일 까지 기사를 씁니다. 마감일이 되면 오타검정과 분량체크 등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신문제작일은 보통 일주일이며 부산일보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Q. 신문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신문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글을 써서 기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치는 동서대 대강당 2층입니다.

Q. 지금껏 신문사 활동을 해 오신 기간,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2017년 2학기에 들어와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신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상 깊은 일이라면 제가 처음 기사를 써서 신문을 내는 첫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터뷰를 맡았는데 마감이 몇 일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의 시간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편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의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며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영상전공의 선배님께 연락이 닿게 되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는 제가 처음 쓴 기사이기 때문에 기분이 남다르고 설렘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상깊이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일은 제가 신문사에 오고 나서 처음 함께한 회식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신문사에 대한 이야기, 마감작업 때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등을 하며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Q. 어떻게 신문사에 들어가게 되셨나요?
A. 저는 동서대 방송영상을 들어오기 전부터 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에 신문사가 있는 것을 알고 1학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하고 학교의 적응을 위해 지원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2학기에 지원을 하여 불계 되었습니다. '1학기에 바로 들어왔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만약 이것을 보고 신문사의 지원이 망설여지는 분 들은 바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Q. 신문사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 이 있다면?

A. 누군가의 일을 전하거나 나의 의견 또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전달하고 싶은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글로써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은 오타나 사실이 아닌 글은 들어가선 안됩니다. 신문사에 들어온 기사만큼 이 부분을 항상 염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Q. 본인에게 동서대학교 신문사란

A. 저에게 신문사란 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다지고 기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신문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신문사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부를 가리지 않고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써보고 싶거나 신문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에 수습기자를 뽑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차기 신문사 국장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포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벌써 국장이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사 국장이 된다면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사를 홍보하고 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물론 오타가 없어야 합니다. 국장이 되는 1년 동안은 오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신문을 만들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년의 동서대 신문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이주원 학생은 다가오는 2019년도부터 동서대 신문사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지금껏 신문사에서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제는 국장이라는 자리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질 것이다. 물론 다른 신문사 정기자, 수습기자들 또한 이주원 학생을 옆에서 많이 도와가면서 신문사를 가꾸어 나갈 것이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국장으로서 동서대학교 신문사를 이끌어갈 이주원 학생을 동서대학교 신문사가 응원합니다.

김용창 수습기자
mcdbsckd@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노아



▶아담의 10대 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뵐을 대신하여 주신 셋 계열의 자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위로’, ‘인위’, ‘휴식’이란 뜻을 가진 ‘노아’는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이다(창 6: 1-13).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창 6: 8-9: 7: 1). 노아와 홍수라는 유명한 이야기는 창세기 6~8장에 나온다. 인간이 심하게 타락하자 신은 인간 전부를 파멸시키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세기 6: 8). 그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노아는 500살의 늙은 나이에 셋, 함, 야벳의 세 아들을 두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있다. 노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 며느리들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과 함께 탈 수 있는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명했다. 신은 방주의 정확한 크기를 말해주고, 노아가 모든 동물을 방

주에 넣어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그 뒤 비가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내려 인류 전체가 물에 빠져 죽었다. (방주는 배가 아니었으므로 노 같은 항해 장치가 없었다. 마치 거대한 생명 보호소 같았고, 어디에 상륙할지는 신의 뜻에 달려 있었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빠지지 않았다. 방주는 이내 아라랏 산에 이르렀다. 부근에 마른 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냈으나 비둘기는 물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한 주일 뒤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보내자 이번에는 올리브 가지를 부리에 물고 돌아왔다. 물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후 올리브 가지를 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뒤 노아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세상을 홍수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성서에서 최초로 제단과 제물이 언급된 경

우다.) 그 약속의 증거는 무지개였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니라” (창세기 9: 13).

즉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헤아려 10대째에 해당하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죄악이 넘친 세상(누가 17: 27)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였고, 이때 노아는 재앙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方舟: 길이 약 100m에 달하는 3층으로 된 배)를 120년 걸려 완성, 가족(아내와 세 아들 내외)과 동물 한쌍씩을 이끌고 방주에 들어가 1년 10일 동안을 그 안에서 지내며 재앙을 피했다(히브 11: 7, 창세 6~8). 《창세기》에는 부정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노아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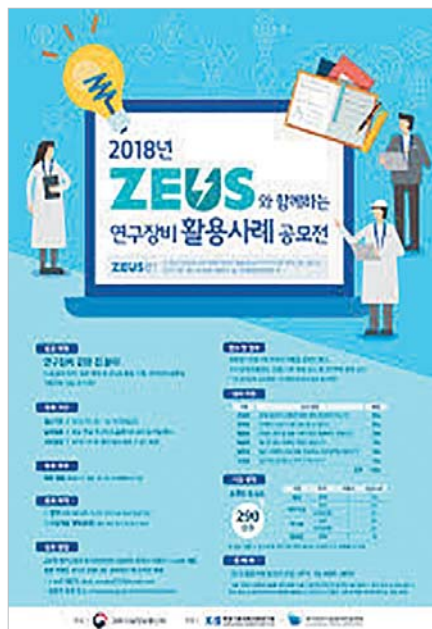
홍수 이야기와 함께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사실은 신·구약성서에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이사야 54: 9, 예레미야 14: 14-20, 마태 24: 37~38, 히브 11: 7, 베전 2: 5), 또 포도를 재배하던 사람으로도 기록되

어 있다(창세 9: 20~29). 노아는 홍수 뒤에 350년을 더 살다 950세에 죽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셋·함·야벳은 각지로 흩어져 세계 인류의 조상, 즉, 각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창세 10).

신은 노아의 세 아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했는데, 현명하고 정직하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을 이은 후손들의 명단이 나온다. 개략적으로 말해함은 현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유럽인의 조상, 셋은 중동인의 조상이다. 유대인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종족이 스스로 ‘셋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셋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들은 히브리인, 가나안인,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아랍인 등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고대 민족들의 집단을 ‘셋족’이라고 부른다.

▷사진출처-네이버 바이블 키워드
자료출처-네이버 지식백과·노아[Noah]
장희진 수습기자
jhn2087@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18 물류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18.11.23. (금)
- 응모대상 : 대학/대학원생 19~34세 (1팀당 4인 이하)
- 접수방법 : 물류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신청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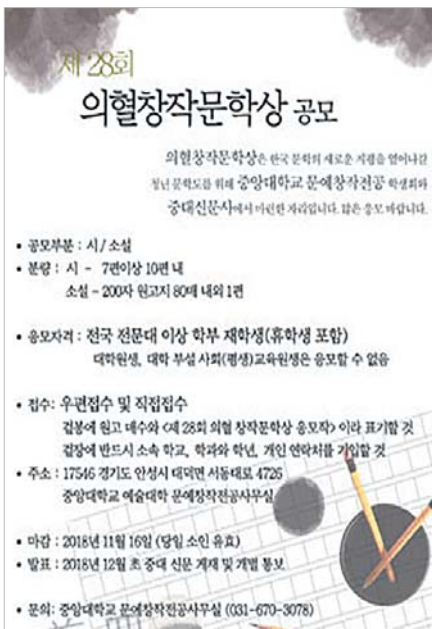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 공모분야 : 사진
- 공모대상 :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18.11.23. (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gjcf_rainbow@hanmail.net (제출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 2019 한국가스공사 온누리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일정 : ~2018.11.16(금)
- 접수방법 : 한국가스공사 공모전 사무국 참가서약서 1부/아이디어 공모계획서 1부

- 공블러 온라인 멘토링 대외활동 너나공 59기 모집
- 응모대상 : 대학생
- 모집일정 : ~2018.11.7(수) 23시59분 까지
- 활동일정 : 11월12일 ~ 12월3일까지 3주간 활동
- 접수방법 : <https://goo.gl/t1ZtJP>

- "포PD" 토크 UCC 공모전
- 공모분야 : UCC
- 공모대상 : 대학생
- 공모일정 : ~2018.11.30(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참조

- 2018년 ZEUS와 함께하는 연구장비 활용사례 공모전
- 응모대상 : 일반(연구자, 연구시설 및 장비 운영자)/이공계열 대학생
- 공모일정 : ~2018.12.10(월)



-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일정 : ~2018.11.15(목) 18시 까지
- 접수방법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 28회 의혈창작문학상
- 공모분야 : 시/소설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일정 : ~2018.11.16(금)
- 접수방법 : 우편 및 직접 접수

- 양양공항 활용 해외여행 공모전
- 공모분야 : 여행 계획 공모전
- 공모일정 : ~2018.11.16(금) 12:00 까지
- 응모대상 : 대학생 (2~4명) 팀
- 접수방법 : 상상유니브 홈페이지 접수

- 여수관광 홍보 UCC 이벤트 공모전
- 공모분야 : UCC
- 공모일정 : ~2018.11.16(금)
- 응모대상 : 여수 관광객 누구나 (단, 2018. 1. 1.이후 여수를 관광한 사람에 한함)

- 스미후루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 공모일정 : 2018.10.11~2018.11.11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이메일 : sumifru@sumifru.co.kr

- 제3회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모집일정 : ~2018.12.31. (월)
- 응모대상 : 대학생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marketing@parkland.co.kr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스 :

트 :

레 :

스 :



11월은 과제와 달이라고 할 정도로 과제가 많다. 많은 과제들이 주는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그리하여 이번 N 행시는 '스트레스'이다. 학우 여러분의 센스 있는 N 행시를 기대해본다.

예시)

여 : 여름이 왔다!

름 : 늴(름)한 자태를 뽐낼 때가 왔다!

방 : 방구석과

학 : 학교에서 벗어나 물놀이를 하러가자!



- 학과 : _____
 - 학년 : _____
 - 이름 : _____
 - 연락처 : _____
- ※ 11월 30일까지 퍼즐에 응모하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12월 3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